

영국발전사업의 모범적인 민영화

FO 국의 前 국영전력회사인 PowerGen과 National Power는 발전사업체간의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고유의 시장점유율을 잠식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사업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두회사의 경험은 실제로 전력사업 민영화를 고려하고 있는 다른 유럽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정부가 1991년에 PowerGen과 National Power사 대주주 지분을 매각하고, 현재 양사 모두 약 40%의 지분만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양사가 계속 시장점유율을 잠식당하고 있고 독립발전사업체가 새로 생겨 이들과 경쟁하고 있다.

예를 들면 PowerGen은 현재 시장점유율이 약 27%이지만 발전사업을 완전히 자유화 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현되는 1998년에는 약 22%까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Lehman Brother사 보고서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장점유율이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사는 경영효율개선에 실적을 올리고 있다. 과잉설비의 폐쇄, 유틸스태프의 일시해고, 그리고 일반산업계의 추세에 따라서 가스발전설비를 건설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양사가 처음으로 수익개선에 대한 주주측의 압력을 받았으며, 그결과 양사는 국영석탄 회사로부터 고가의 석탄을 구입하는 대신에 해외탄을 염가로 수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Lehman Brothers 사 분석자는 지적한다.

가스 화력발전으로의 전환도 수익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건설비가 저렴하고 석탄화력에

비하여 운전요원이 소수이기 때문이다. 현재 PowerGen과 National Power는 구식발전소를 폐쇄하는 한편 보다 효율이 좋은 신규발전소 건설을 통하여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하고 있어 신참 독립발전사업자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997년에는 양사의 시장점유율이 다시 증가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이 런던소재 UBS증권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로 민영화이후 양사 주식의 실질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한다. PowerGen의 경우 세전 순이익이 1993년의 425백만 파운드(£, 1)에서 올해는 477백만(715백만 미불), 1995년에는 492백만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ational Power는 1993년 실적이 580백만이었으나 1994년에 597백만, 1995년에는 654백만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이외의 유럽국가에서는 정치적 압력이나 주주의 압력이 있을 경우에 영국의 2개사와 비슷한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Lehman Brothers 사 관계자는 말한다.

유럽연합(EU)은 주기적으로 관내 12개국의 발전 및 전력공급 시장을 개방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그러한 계획이 대부분 독점 또는 준독점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각국 국영 전력회사의 강력한 반대로 현재 보류되어 있다.

유럽연합(EU)의 발전사업 규제완화문제는 집행위원회 개편이후 누가 유럽연합에너지 담당 각료직을 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㉔